32. 심판의 보좌가 놓이고
2012. 8. 05.

금빛 새벽 은혜와 진리시간을 애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보좌가 놓이고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심판의 실상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7:9~12]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 목사님, 지난번에 7장 9~14은 7,8의 설명 부분인 18~25을 설명한 후에 말씀할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답: 맞아요. 9~14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6절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먼저 26절을 한 번 읽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읽으실래요?

[단7: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대로 25절은 작은 뿔의 행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작은 뿔은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이 바로 9~14의 내용입니다. 이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니엘에게 보이기를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주위에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옹위해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이한 묘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린 것인데 이것은 이동식 보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 1장과 10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가장 합당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암시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딤전 6;15,16에 기록되어 있고, 요1:18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색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묘사된 하얀 머리털 눈 같이 하얀 옷 불붙는 바퀴 불이 흘러내리는 보좌 이런 묘사들은 다 계시적 상징적 형상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형상이 무엇을 가르치는 상징인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순결과 정결케 하시는 기능 온 우주를 빠짐없이 둘러보시는 능력 등등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과 관련되어서 어떤 입장에 서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묘사이지요.

2. 그러면 이 시판에서 피고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온 우주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피고가 있는지요?

답: 우선 이 장면을 보면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들이 어떤 책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11,12에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책들의 성질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이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계20:11,12]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이것도 심판 장면인데 그러나 다니엘 7장과는 다른 장면입니다. 이것은 1천년 후의 심판장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이지요. 그러나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같은 모습인데 여기 펴져 있는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그냥 책들이라고 했고, 다음은 단수로 책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장 앞에 펴 놓인 책은 생명책과 다른 책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장면을 보면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 복수로 말하는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실을 기록한 행위 기록부라고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책들도 생명책과 행위 기록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말씀을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과 계시록 20장은 다른 장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계시록 장면이 천년왕국 후의 장면이라면 다니엘 7장은 언제 심판을 나타냅니까?

답: 아까 목사님이 다니엘 7장 심판에서 피고가 누구냐고 했지요. 계시록 20장에는 피고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계시록처럼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알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단7:11을 읽어보시지요.

[단7: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 말씀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작은 뿔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집니다. 원문에

는 그냥 그 뿔입니다. 작은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뿔이니까 작은 뿔입니다. “그 뿔”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이라는 말을 넣었군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큰 소리하는 것과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관계가 있는데,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입니다. 곡 로마제국이지요. 로마제국이 망하는데 작은 뿔의 큰 소리가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국로마가 망한 후에 작은 뿔이 열 뿔 사이에 나온 것을 생각하면 작은 뿔과 제국로마의 망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상징적인 표현은 제국로마는 죽고 교권로마가 그 위를 대신 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12절을 보면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고 했는데, 다른 짐승들이란 넷째 짐승보다 먼저 나온 짐승들이거든요. 그것들은 넷째 짐승이 나올 때는 이미 다 사라진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짐승들의 정신이 작은 뿔을 통하여 유지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계시되어 집니다.

4. 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납니까? 계시록은 다니엘보다 훨씬 뒤에 기록한 계시가 아닙니까?

답: 그렇지요. 그런데 13장 1,2절을 읽어보면 다니엘 7:11,12의 말씀이 그때 다신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지요.

[계13:1,2]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도 짐승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생긴 짐승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조합한 모양이지요. 이 짐승의 실상을 알려면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니엘서를 살피는 시간이니까 이 장면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 아무튼 다니엘 7장 11,12의 말씀이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확실하게 예언된다는 것을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왔기 때문에 넷째 짐승이 불에 던져지면 작은 뿔은 당연히 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 말씀에 의하여 7장의 심판의 피고는 작은 뿔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5. 작은 뿔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심판 정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좀 이상하고요, 작은 뿔을 심판한 내용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분명한 것은 7장의 심판장면이 계시록 20장의 심판장면과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 번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장면이니까 다니엘의 이 장면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장면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심판하실 시간과

때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30,31을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지요.

[행17:30,31]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벧전 4:17~19입니다. 읽으시겠습니까?

[벧전4:17~19]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이 말씀은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권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벧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있지요 계시록 14:6,7절입니다. 읽어보시지요.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보세요, 이 말씀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지요. 베드로는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고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조물주로 번역된 말이나 창조주라고 번역된 말은 같은 “크티스테스”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자신을 창조주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딤전3:15을 읽어보시지요.

[딤전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말했지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9:2에도 나타나는데요, 한 번 읽어보지요.

[계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말씀도 천년왕국 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데, 음녀를 심판하셨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받은 것을 신원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음녀는 계17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 심판 내용이 17,18장에 있는데, 다니엘 7장에 작은 뿔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설명은 계시록을 연구할 때 자세히 해야 하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나 계13장이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사실의 연장선으로 나타내주신 것처럼 역시 음녀 사건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연장선에서 계시한 사실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다니엘 7장의 심판의 피고가 작은 뿔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심판하십니까? 교회를 잘 가꾸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도록 이끄셔야 할 것인데요?

답: 그렇지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셈인데요.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로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지요. 그냥 두면 그 정체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해야 하지요. 심판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로 나타나지만 세상 정권을 모양을 바꾸어서 교권우로 나타내는 실상을 드러내어야 사람들이 하늘에서 속죄 봉사하시는 구주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 정을 개정하고 이 실체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이거든요. 살후 2:2~4에 그렇게 잘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또는 예수교회들이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신앙과 교리로 주장하는 것이 성경 상으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으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면서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 신도들은 지도자가 말하는 것만 따라가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시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실상은 작은 뿔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7. 예, 이제 왜 교회를 심판하시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심판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이 문제는 8장 9~14에서 다시 더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아마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한 예언이 8장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17:31절에서 읽었습니다만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기별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아주 크게 외쳐졌지요. 그

러나 그 전에 위클립이나 허스나 제롬 등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다는 성경의 확실한 기별과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지요. 행 17:30에 기록된 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루터 등 개혁자들에 의하여 어디든지 회개하라는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뿔의 권세도 역시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조직, 교권로마는 루터와 그 무리들이 전하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오늘날 개신교라는 교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엄청 미흡하지요. 심판하실 시간이 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을 드러낸 확실한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8장에서 그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8. 아까 7:26절에 심판이 시작된즉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사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정체가 드러나니까 전에 누렸던 권세를 다 행사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미 다른 설명에서 살펴본 대로 1260년 기간이 끝나면서 그 전성기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개혁과 국가적 사건 등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꺾였던 것만은 확실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22에 이런 사상이 나타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단7: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고맙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9절에 심판의 왕좌에 앉으신 분이지요. 여기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라 했는데, 이 말은 9절에 심판이라는 말과 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에서 놓이게 하면서 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작은 뿔에 대해서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양쪽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마음놓고 성경 읽고 설명하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작은 뿔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할 것이지만 일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 날까지 갈 것이며 끝 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한 기록이 세 번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는 말도 세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 대귀를 맞춘 것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9. 그런데 13절 14절에는 인자 같은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 앞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 정말 그 말씀 좀 읽어보지요. 단7:13,14입니다.

[단7:13,14]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자칭호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단7:13이 배경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심판 정에 임하시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정을 베풀어놓았지만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하셨고 또 "요5:26,27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심판 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인자 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든지 그릇되게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신 인자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인자의 나라 곧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믿을 때만 진정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맹수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를 대조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복음적 의미가 있지만 시간도 다 되었고 라디오 설교로 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사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계시한 대로 바르게 깨달아 예수를 믿고 영생의 생명을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와 애청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깨달아 알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판으로 성도를 신원하시고 작은 뿔의 실상을 드러내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의 진리를 깨닫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의 좌표를 따라 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을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